4. 현인을 등용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논함

현인을 불러들여 쓰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옛날의 황제나 왕은 지극한 정성으로 현인을 찾으면서도 오히려 그 정성이 모자랄까 걱정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통해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낚시질하고 있는 자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인을 기리고 장려하는 뜻을 보여준 것만 아니라, 하늘이 맡겨 주신 직위를 그들과 함께 누리고 하늘의 녹을 먹게 하여, 만백성에게 혜택이 베풀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인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고 말을 시켜보아서 살펴보고 행동을 시험한 다음, 과연 그가 현명한 사람이면 임금은 그를 가까이하고 그의 계책을 받아들여 그가 가진 정치철학을 실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현인을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선비를 사랑하고 현인을 찾으시는 것이 옛것과 비교해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절개를 간직한 숨어 있는 선비와 자신의 덕을 감춘 선비를 거의 모두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은 근고(近古)에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인의 천거를 의논할 때에 평범하게 아무개는 쓸 만하다고 말할 따름이지 상세한 행적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이미 적합하지 않게 천거한데다가, 전하께서도 그 사람을 직접 보시고 그가 현명한지 안한지를 살펴보는 일이 없이 그저 관례에 따라 벼슬을 줄 뿐입

니다.

선비가 자신의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것은 벼슬이나 재물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야의 선비들 가운데 어찌 벼슬이나 녹봉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선비의 출처(出處)*는 본디 한 가지 양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벼슬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주를 감추고 그것을 함부로 펼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하께서 현인을 불러들일 때 벼슬과 녹봉만 내려 줄 뿐, 그를 만나보아 살피고 시험하여 뽑아 쓰고 그의 정치철학을 실천하게 하는 실질적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천거되어 벼슬자리에 나아온 사람들을 보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나왔다거나, 가난 때문에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벼슬한다는 사람도 있거나, 단지 성은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사람은 있으나,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정치철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인을 찾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도 결국 겉치레에 지나지 않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무엇을 통해 이루겠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로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 출처(出處) :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과 벼슬하지 않고 재야에 묻혀 사는 것.

해설

이 글은 실공(實功)의 일곱 가지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인을 불러들여 쓰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지적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인이란 윤리 ·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동시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거시험만으로 그런 현인을 골라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인을 찾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성적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사실 유학은 자신의 몸을 닦아 성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부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야 남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논리이다. 『대학』에서 말하는 8조목의 논리 곧 "사물에 나아가 앎을 이루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고 가정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순서도 바로 그 논리이다.

그러니 뜻있는 선비들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닦지 못했는데, 과거시험공부만 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알았다. 그래서 숨어 살면서 몸을 닦으며 나라를 경영하는 공부를 하였다. 그런데 이런 현인들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이 숨어사는 현인을 찾아내 모셔와 벼슬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숨어살면서 벼슬길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비 스스로 자신의 학문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왕이 무능하고 정치가 문란하여 벼슬길에 나와 보았자 어차피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결한 이름마저 더럽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쉽게 말해 정통성 없는 여당의 얼굴마담 노릇을 하기 싫어서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임금이 믿음을 주어야 비로소 나온다.

그런데 그런 선비들 가운데는 인품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일부러 숨어살며 은근히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에서 임금이 직접 만나 살피고 시험해 보라는 율곡의 말이 이런 뜻에서 진짜 현인인지 알아보라는 말이다. 단지 다른 사람의 평판만 듣고 형식적으로 벼슬만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 등을 임명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선거 때 도와 준 사람, 언론을 통해 평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사람, 어떤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낸 사람보다 언론플레이로 잘 알려진 사람, 대중적 인기가 많은 사람,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할 사람 등만 뽑아서 중요 직책에 앉힌다면 나라의 앞일을 보나마나 한 일이 된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정책을 수행할 능력은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만이라도 제대로 통과하는지가 문제다. 마치 비리가 종합선물세트처럼 많은 사람들을 뽑으니 국민

의 평균 눈높이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나마 약간의 비리가 있더라도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비리가 워낙 많아 낙마한 인사가 몇 명인지 살펴보라.

반면 자신의 의견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가능한 쓰고, 설령 관직에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몇 번이고 찾아가서 모셔 와야 한다. 재야에는 능력이 있고 덕망이 높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덕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지 않을 뿐이며, 평판이 좋지 않은 정권에 발을 들여 놓아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될까봐 나서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위에서 불러주기만을 목 빼고 기다리다 얼른 튀어나오는 인사들이 얼마나 비루한지 보라. 인사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낙마한 인사들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지만, 통과해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엉뚱한 실수로 물러나는가 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의 철학이나 소신의 실천보다 윗사람의 눈치만보고 자리만 보전하다가 임기만 채우면 다행으로 안다. 옛 선비들처럼 자신의 소신이 먹히지 않으면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초야의 산림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는 내야하지 않을까?

이런 일은 유학의 기준에서 볼 때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사람을 뽑아 쓸 때 능력 있는 현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사들만 골라 쓰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정책에 반대만 일삼는 사람

을 골라 쓰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시킬 만한 논리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만약 그 반대하는 논리가 타당하다면 거기에 굴복하는 것도 용기이며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夫修身篤行, 非以有求也. 山林之閒, 豈無不屑
부 수 신 독 행 비 이 유 구 야 산 림 지 간 기 무 부 설

爵祿者哉. 士之出處, 固非一端. 有不卑小官者,
작 록 자 재 사 지 출 처 고 비 일 단 유 불 비 소 관 자

有韞櫝不售者. 殿下之招賢, 只命以爵祿而已,
유 온 독 불 수 자 전 하 지 초 현 지 명 이 작 록 이 이

殊無接見察試, 擢用行道之實.
수 무 접 견 찰 시 탁 용 행 도 지 실

夫: 대저/修身篤行: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다/非: 아니다/以: 도구, 방법을 나타내는 어조사/有求: 구하는 것이 있다/山林: 초야 또는 재야/閒: 사이/豈~哉: 어찌 ~하겠는가?/無不: ~않은 것이 없다/爵祿: 벼슬과 녹봉/者: 사람/士之出處: 선비의 출처. 출처는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남/固: 본디/一端: 한 가지 단서/不卑: 비천하게 여기지 않다/小官: 낮은 관직/韞櫝不售: 보물을 함에 감추고 팔지 않는다는 것으로 재주를 감추고 함부로 펼치지 않는 것을 비유한 공자의 말/殿下: 임금을 부르는 말/招賢: 현인을 불러들이다/只: 다만/命以: ~을 가지고 명하다/而已: 강한 단정을 나타내는 어조사/殊: 달리, 전혀/接見: 접견하다/察試: 살피고 시험하다/擢用: 뽑아 쓰다/行道: 도리를 실천하다/無~實: ~하는 실질이 없다

해석

대저 [선비가] 자신의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것은 [벼슬이나 재물이나 명성을] 구하는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재야의 선비들 사이에 어찌 벼슬이나 녹봉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선비의 출처(出處)는 본디 한 가지 양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벼슬이라도 비천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재주를 감추고 그것을 함부로 펼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하께서 현인을 불러들일 때 다만 벼슬과 녹봉만 내리도록 명할 뿐, [그를] 만나보아 살피고 시험하여 뽑아 쓰고 그의 정치철학을 실천하게 하는 실질이 전혀 없습니다.